남원 귀농시 주택자금 7500만원 지원

작물 재배·축사 신축 등 창업 땐 세대 당 3억원
사업 계획 등 심층 면접…다음달 3일까지 모집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남원시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파격 지원에 나선다. 남원시는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 모집은 오는 7월3일까지 이어진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 당 3억원 한도 이내다. 경종(파종을 통한 작물재배) 및 축산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 구입, 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 당 7500만원 한도 이내다. 주택구입 및 신축 등을 대출 금리 연 1.5%(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다.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 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농업인)이다.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실시한 뒤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꿀단지' 남원 명품 복숭아 출하

수확시기 전국서 가장 빨라

수확을 앞둔 남원 명품 복숭아.

전북 최고의 명품 복숭아로 불리는 남원 복숭아가 본격 출하되면서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남원시는 명품 하우스 복숭아가 지난달 20일부터 수확을 시작했다며 현재는 노지 복숭아까지 수확과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극조생종과 조생종인 남원 복숭아는 수확시기가 빨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복숭아다.

중만생종만큼 크기가 크진 않지만 한손에 딱 들어오는 부담 없는 크기에 특유의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맛과 향뿐만 아니라 단백질, 아미노산, 유기산,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많이 함유한 고품질 명품 복숭아다.

남원지역 복숭아의 품질이 좋은 데에는 섬진강 변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을 갖춘 지리적 여건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관련 교육과 연구, 기술보급 등에 농가가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안정적 생산기반과 함께 품질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같은 노력은 남원 복숭아가 시와 원예농협, 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홍콩 바이어를 통해 해외수출로까지 성과를 내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역 300여 농가가 면적 330ha 규모에서 재배 중이며 10과에서 12과 사이의 2.5kg 1박스는 도매가 기준 4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성과급을 지원한다. 정읍 구절초지방정원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 〈정읍시 제공〉

정읍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성과급

내국인 15명·외국인 10명 이상 업소 이용시 1인 최대 1만원

정읍시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성과급을 지원한다.

정읍시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단체관광객을 관내에 유치해 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여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당일 관광은 내국인 관광객 15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이 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할 경우 1인당 5000원을 돌려준다.

숙박 관광은 내국인 관광객 15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은 10명 이상이 관내 음식점에서 2~3식 이상의 식사를 할 경우 1인당 1박 1만원, 2박은 2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국인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은 30인 이상으로 당일 관광 1인당 5000원, 1박당 70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방문 7일 전까지 사전신청서를 정읍시 관광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고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6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단체관광객 유치로 침체됐던 지역관광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14개 마을 찬란하게

문화도시센터, 문화경관 사업 공모

고창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문식)가 '2023년 마을 문화경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마을 찬란하게 사업' 대상마을을 16일까지 모집한다.

'우리마을 찬란하게 사업'은 고창군 14개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주민들이 예술가와 함께 마을 경관을 기획하고 조성하는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이다.

마을별 결과물 중 책자, 사진, 영상물 등은 전시회로 개최할 예정이며, 벽화·소조· 디자인·조경 등은 분야별 예술가들을 선정해 대상 마을에 대한 컨설팅과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문화경관 조성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경관 시설 지원 ▲마을 문화 경관물(마을벽화, 게시대, 마을정원, 문패, 조형물 등) 조성활동 및 제작 지원 등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 전입 지원금 30만→40만원 '상향'

6개월 이상 거주 최초 전입자

정읍시가 지역 최초 전입자에게 지급하는 전입 지원금 규모를 상향했다.

정읍시는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생활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금의 규모를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상향해 1인당 40만원씩 지급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일반인과 학생, 군인 등이다.

시는 전입한 일반인 1인당 15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 학생(중·고·대)의 경우에는 최초 1회 15만원 현금과 6개월당 5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입 군인(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군인)에게는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해당 금액만큼 지원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지원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판소리 성지'서 판소리 배우기

'산공부' 참가자 모집…8~15명 7~8월 교육

'판소리의 성지'로 불리는 고창군이 판소리 산공부 운영을 위해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판소리 산공부'는 신재효판소리공원 활용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판소리 전공자들의 고창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신청 자격은 판소리 명창, 지도자 또는 국악대학 판소리 전공자이며 1회 10일 이내 8~15명 정도 참가할 수 있다.

교육은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며 산공부 장소와 참가자 숙소가 제공된다.

산공부 장소인 신재효판소리공원 내 득음실은 전문 소리꾼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명창과 제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오미숙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신재효판소리 산공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잘 보존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판소리 XR실감 콘텐츠 체험관 구축 등으로 고창 판소리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